

# 창업 꿈 펼칠 청년 상인 모집

익산시, 15일 · 22일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서 사업설명회

익산시가 중앙시장 청년몰 '상상노리터'를 알리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 상인을 모집한다.

시는 오는 15일과 22일에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청년몰 사업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선다.

지난해 2월 개장한 청년몰 '상상노리터'는 계약일로부터 2년간 임대료를 무상지원한다.

또한 △공용 전기 및 수도 요금 지원 △다이로움 추가 합인 △각종 체험 행사 개최 등 운영·홍보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24년도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시설 개선 등 지원하고 야시장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청년몰은 만 18~49세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누구나 입점이

가능하며, 소상공인과(063-859-5219)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청년몰 상인 모집 자격을 만 49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예비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중앙시장 주차장 확장, 슬기로운 동네생활 사업 추진 등 중앙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몰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지난 9일 다송무지개매화마을에서 개최된 반려견 축제 '댕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반려견 축제 '댕스티벌' 성료

익산 다송무지개매화마을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호평

익산시가 지난 9일 다송무지개매화마을에서 개최된 반려견 축제 '댕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댕스티벌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마을별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진행한 '문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축제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며 익산의 대표 반려동물 축제로 인식됐다. 이번 축제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며 익산의 대표 반려동물 축제로 인식됐다. 이번 축제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며 익산의 대표 반려동물 축제로 인식됐다.

반려견을 위한 문화교육, 펫 용품 만들기,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생샷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지역의 반려견 관련 기업들과 원광보건고등학교 등이 참여해 최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려견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가 됐다.

한 참가자는 "익산에 반려동물을 위한 이런 넓은 공간이 있는 줄 몰랐는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해 만족스럽다"며 "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한 반려견 놀이터와 쉼터에서 반려견들이 모여 교류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가져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는 행정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축제로 더 의미가 깊다"며 "익산의 다른 마을축제들도 주민이 주축이 돼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소식통

군산시, 공공데이터 제공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군산시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군산시는 사회 현안 재난 안전 분야 등의 다양한 데이터 신규 발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 데이터 제거를 통한 데이터 품질 수준 향상 등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인 58.8점 대비 97.35점의 높은 점수를 얻어 전북자치도 내 유일 우수기관 · 4년 연속 최고 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68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 실태를 파악해 기관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유도하는 등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중학교2년대상 자기 신청 장학금 신청 접수

교육도시 군산시가 11일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중학생 자기계발 연수 '자기 신청 장학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자기 신청 장학금'은 기존 일회성의 학교 주도적인 진로 체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스스로 자유롭게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군산 내 모든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신청은 1기 3월, 2기 5월, 3기 9월, 4기 11월 4기수 중 원하는 일정에 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되며, 선발된 학생들은 1인당 최대 15만원의 탐구 비용이 군산시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양질의 계획을 수행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기회를 한번 더 주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글로벌 문화탐방 참여 기회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탐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판근기자

## 익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기존 청년서 전 연령층 대상

익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작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만 18~39세 청년만 지원

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9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 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차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역소재 아파트, 빌라, 원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제공 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마무리된 1차 모집에서는 22개 기업 22명이 접수되었으며 오는 3월 중 심의위원회

를 거쳐 임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모집 신청은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대상업체는 군산 1~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이다. 지원 규모는 30개 기업당 60여 명 정도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에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기업당 1인에서 2인으로 늘렸고, 지원을 받는 기숙사 이용자 기준 또한 입사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월 20만원 한도) 이내로 기숙사 이용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063-454-277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 국회의원 선거 대비 2차 '청렴주의보' 발령

익산시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 및 부패 방지에 나선다.

시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직자감 확립을 위해 11일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청탁 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명절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자감 해이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공직자감 확립을 위해 수시로 발령한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 △선거 운동 및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이다.

시는 선거 90일 전인 지난 1월 11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자감 특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자감 해이,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를 통해 공무원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청렴 도시 익산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보건소, 전입시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 확대

군산시 보건소에서 타 지역에서 전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먼저 신규 전입자를 위한 건강검진의 혈액검사 항목은 기존 13종에서 혈당 의 21종(간기능, 신장기능, 지질, B형간염 등)으로 늘어났으며 기초검진(신장·체중 및 혈압 측정)과 흉부 엑

스선 검사를 통한 폐 이상소견 발견 및 폐결핵 진단도 진행,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내과 의사와의 건강상담과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군산시 보건소는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시민들의 만성질환 진행을 예방하고 각종 전염성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검진 대상자는 시 전입 후 1년 이내의 18세 이상 성인 건강검진 희망자이면 가능하다. 검진 시 전입신고 날짜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최소 10시간 공복을 유지한 채 보건소 1층 민원접수실로 방문하면 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